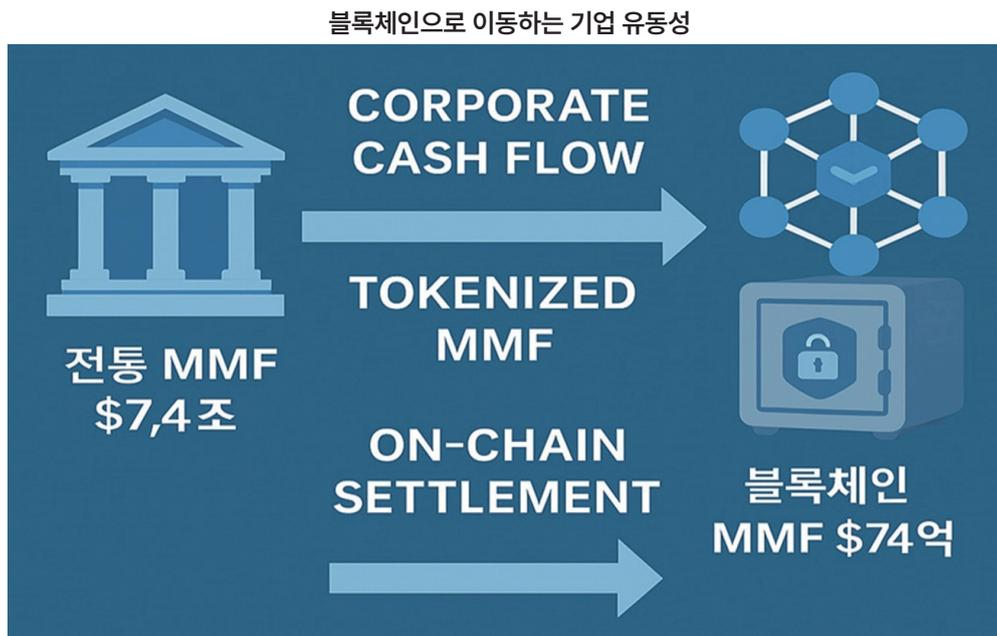


블록체인이 여는 온체인 머니마켓의 시대: 기업 유동성의 새 질서

은행을 떠나는 돈, 움직이기 시작한 기업 현금

전세계의 기업 현금이 은행을 떠나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자금을 단순히 예치하던 관성은 약해지고, 돈은 블록체인을 타고 이동하는 '실시간 유통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다. 국채와 머니마켓펀드(MMF)가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되면서 결제는 더 이상 익일(T+1)을 기다리지 않는다. 네트워크상에서 1분 이내(T+0)로 자금이 이전되고, 정산까지의 지연도 줄었다. 장부에 잠들어 있던 현금이 데이터의 흐름으로 재편되면서 유동성의 본질도 변화하고 있다.

2025년 10월 현재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 온체인 MMF의 운용자산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74억 달러에 달한다. 전통 MMF의 7.4조 달러에 비하면 아직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성장 속도만큼은 그 격차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은 블록체인을 국채 시장의 새로운 인프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JP모건의 블록체인 자회사 Onyx는 "결제 지연은 새로운 인플레이션"이라 표현하며 속도 자체가 금융 안정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금융의 패러다임이 '규모의 경쟁'에서 '속도의 경쟁'으로 이동하면서 기업의 생존 공식도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의 돈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은행이 아닌 블록체인으로 이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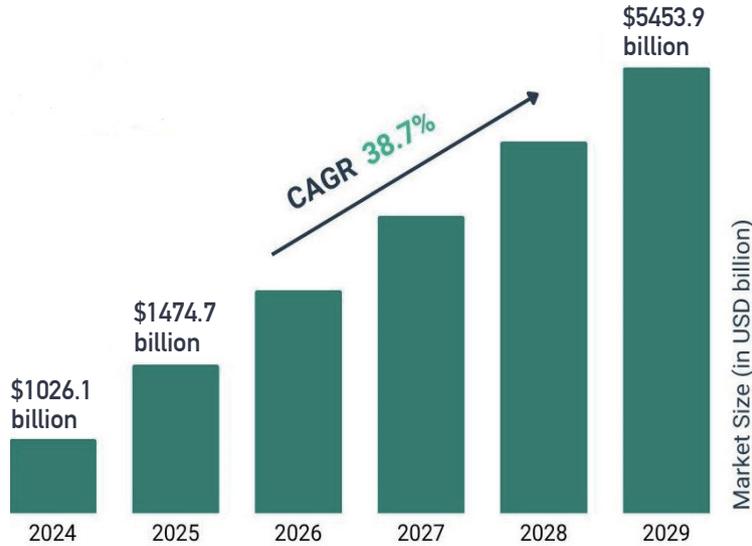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기술의 진보가 열어가는 새로운 금융질서

새로운 글로벌 금융질서의 중심에는 신속성과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축이 존재한다. 고금리의 장기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순 보유보다 운용을, 정체를 회전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초단기 자금시장에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자금이 재배치되며 '안정=느림'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달러 유동성의 재편과 역외 결제망의 다변화는 자금이 머무는 시간을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금의 체류를 최소화하고, 거래 주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 예측



출처: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 'Assets Tokenization Global Market Report 2025'

블록체인은 이러한 신속한 자금 운용 체계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제적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분산원장기술(DLT)과 클라우드 매칭 엔진은 결제 사이클을 줄여 실시간 현금·증권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거래 기록은 내부통제와 감사를 강화한다. 이러한 결합은 결과적으로 자본비용을 절감시키고 유동성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정산 주기가 하루만 단축돼도 기업의 수익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금 잔액 1조 원, 평균 운용금리 3.3% 가운데 20%가 결제 대기 상태라면, 하루에서 1분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면 연간 수십억 원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온체인 MMF의 수익률(4.7~4.9%)을 더하면 단순 금리 차이를 넘어 자금 회전 자체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하루의 시차를 줄이는 일은 이제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현금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확장하는 일이 되었다.

한편,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은 거래 지분의 즉시 이전부터 담보 설정과 대금 지급의 자동 실행까지 가능하게 한다. 납품이 확인되면 대금 일부가 바로 지급되고, 품질 보증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액이 자동으로 정산된다. 과거 신용장(L/C) 서류를 주고받느라 일주일 가까이 걸리던 절차가 이제는 스마트계약으로 자동화된다. 기업 재무관리자(CFO)가 데이터를 검토하는 사이 거래가 완료되고, 자금은 곧바로 회계 장부에 반영된다. 자금 운용의 민첩성이 이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온체인 머니마켓 도입과 경영 변화

글로벌 금융의 무대에서 지금 가장 치열한 경쟁은 '속도의 전쟁'이다. 누가 먼저 정산하고, 누가 더 짧게 자금을 묶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블랙록의 BUIDL 펀드는 전통 자산운용사의 경계를 깨뜨린 대표 사례다. 미국 국채와 현금성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토큰화하여, 기관투자가가 실시간으로 지분을 발행·교환할 수 있게 만들었다. 과거 하루 이상 걸리던 청산 절차가 현재는 몇 분 안에 끝나며, 자금은 잠들지 않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블랙록은 이를 "세계 최대의 국채를 디지털 유동성으로 전환한 실험"이라 표현했고, 이 펀드는 2025년 현재 운용자산 29억 달러로 금융시장의 새 기준이 되었다. JP모건의 Onyx 플랫폼은 속도를 더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은행 간 결제를 하루에서 1분으로 단축해, 고객사의 운전 자본 활용성을 높였다. "우리는 시간을 줄인 것이 아니라 자본의 본질을 바꿨다."는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의 한마디는 금융이 속도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하루가 단축된다는 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기업의 신용·유동성·수익성이 하루만큼 앞당겨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JP모건은 현재 Onyx를 통해 하루 평균 1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실시간 결제하며, 글로벌 금융의 '속도 허브'로 부상 중이다.

* BUIDL(BlackRock USD Institutional Digital Liquidity Fund):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2024년 3월에 세계 최초로 발행한 온체인 머니마켓 펀드. 블록체인 기반 토큰이며, 단기 국채(T-Bills) 및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

세계 금융 인프라도 같은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유럽은 SEPA(유로 단일결제지역 결제 인프라)로 즉시 결제를 확대해 송금과 결제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었고, 영국의 RTGS(실시간 총액결제)는 결제 데이터를 ISO 20022(국제 표준 메시지)로 통합해 국경 간 결제 효율을 높였다. mBridge 프로젝트에서는 홍콩·태국·UAE·중국 중앙은행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국가 간 디지털 결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사우디와 UAE는 국부펀드를 앞세워 토큰화 자산 투자에 나섰고, 싱가포르는 민간 협력으로 CBDC·온체인 결제를 상용화하며 새로운 금융 허브로 부상했다. 이제 금융의 중심은 뉴욕과 런던만이 아니라 리야드·싱가포르·상파울루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 * SEPA(유로 단일결제지역 결제망, Single Euro Payments Area): 유럽연합(EU) 내에서 개인·기업 간 유로화 송금과 결제를 단일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위한 즉시결제 인프라
- * RTGS(실시간 총액결제, Real-Time Gross Settlement): 은행 간 대규모 자금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중앙은행 기반의 핵심 결제 시스템
- * ISO 20022(국제 결제 데이터 표준): 전 세계 금융기관 간 결제·송금 정보를 동일한 구조와 언어로 교환하기 위한 메시지 표준
- * mBridge(다국간 CBDC 결제 프로젝트): 홍콩·태국·UAE·중국 등 4개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이 공동 추진 중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의 국가 간 실시간 결제 실험

글로벌 선도기업의 블록체인 머니마켓 사례

BlackRock	'BUILD' 펀드의 운용자산이 2025년 29억 달러에 도달
JPMorgan CHASE & CO.	'Onyx'를 통해 하루 평균 10억 달러 실시간 결제
DBS	온체인 결제로 회전율을 최대 30% 향상 & 운영비 10% 절감
TESLA	상하이항 정산 시간을 50% 이상 단축

출처: BlackRock, JP Morgan, MAS, Tesla

가장 흥미로운 주인공은 테슬라다. 테슬라는 상하이항 수입 물류 과정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해, 통관·운송·서류 확인의 전 단계를 디지털화했다. 예전엔 수입 서류 승인만 며칠이 걸렸지만, 지금은 부품이 도착하자마자 '납품 확인→자동 대금 지급'이 코드로 실행된다. 결제 정보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와 연동돼 CFO는 자금이 어느 지점에서 막혀 있는지를 즉시 파악했고, 물류팀은 "화물이 하역되자마자 창고 문이 열렸다"고 회상했다. 테슬라는 매달 결제 리포트 대신 실시간 대시보드를 본다. 돈의 흐름이 멈추는 순간, 생산과 공급망도 멈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체감한 것이다. 현재 테슬라는 금융회사가 아니지만, 금융회사보다 빠르게 돈을 움직이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빨리빨리'의 나라 한국, '느린 돈'의 역설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하루에 수백만 개의 칩을 생산하지만, 자금의 흐름은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5G 통신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기업의 결제 체계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생산은 빠르는데 돈은 느리다"—이것이 한국 금융의 구조적 역설이다. 기술과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자금 결제와 운용은 여전히 문서와 승인 중심의 절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대기업이 전산화된 자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프로세스를 실험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향후 금융 혁신의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금융 환경에서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이 곧 신뢰로 이어진다.

기업 유동성 흐름의 '현재'와 '미래'

	현재: 정지된 유동성	미래: 순환 유동성
운용 구조	은행 예금 - 전통 MMF	블록체인 온체인 MMF
정산 속도	T+1 (익일)	T+0 (실시간)
수익률	3.3%	4.7~4.9%
운용 효율성	자금 정체	자금 회전
운용 시간	영업시간 한정	24시간 365일

정부와 국회가 2025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토큰증권(STO)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다. 두 정책은 블록체인 기반 자산운용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핵심 축으로, 디지털 금융시장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법률과 제도만으로 변화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이를 실제 시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회계 기준, 공시 규정, 수탁기관의 책임 범위 등 세부 지침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업과 정부 모두 철저한 준비와 이행 의지를 갖춰야 한다. 법률과 제도는 방향을 제시할 뿐, 실질적인 변화는 현장의 실행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 일정

	핵심 내용	진행 상황
디지털자산 기본법	가상자산 정의, 발행, 상장, 수탁, 감독 등 포괄 규율에 대한 2단계 법체계	정기국회 심사 중 2025년 중 제정 및 공표 목표
토큰증권(STO) 제도화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 제도화 및 거래소 플랫폼 제도권 편입	국회 논의 중 / 2025년 하반기 입법 목표(세부 시행령은 2026년 예상)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준비금, 발행자 자본요건, 보고의무 등 제도화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에 기본틀 포함 / 금융위 세부기준 마련 중

기업의 대응과 제도의 뒷받침

한국 기업이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기술 채택이 아니라, 자금 운용 체계를 재설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무조직의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기존의 회계·보고 중심에서 벗어나, 자금 회전율과 정산 주기 단축을 주요 성과 지표로 삼아야 한다. CFO는 회계 관리자가 아니라 '자금 운용의 전략책임자(Treasury Strategist)'로 진화해야 한다. 정산 시차와 결제 지연을 줄이는 것이 곧 비용 절감이자 수익 창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 주요 기업들은 '디지털 트레저리(Digital Treasury)'라 불리는 통합형 자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기업 내부의 모든 자금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해, 자금의 이동과 결제 상태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 플랫폼이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는 회계 시스템(ERP,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과 연결되면, 결제 지연이나 현금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거래 프로그램을 서로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기술(API, 응용프로그램 연결 장치)을 더하면, 은행·핀테크·기업 간 자금 흐름이 자동으로 연결된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주요 금융지주사 등이 이런 체계를 시험적으로 운영 중이며, 일부 중견기업도 핀테크 기업과 협력해 클라우드 기반 회계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 기업의 재무 부서는 여전히 보고와 결제 중심의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의 안정적 경영에는 적합했지만,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에서는 민첩성이 제한될 수 있다. 앞으로는 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공유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속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시스템보다 사람이며,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가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조직 전반에 확산될 때 기업의 대응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기업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시장이 자동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금융 영역을 넘어 제조, 물류, 정보통신 기업 등 산업 전반이 새로운 금융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이 온체인 머니마켓과 같은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실험·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 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민간 블록체인 결제망과 연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도 해외 기업들과 동일한 수준의 실시간 결제·정산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거래 비용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공공 인프라의 디지털화 또한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필수 조건이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단지 금융 부문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운영 효율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다.

속도의 경제, 느린 돈의 시대는 끝났다

세계는 이미 속도의 경제로 진입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기술과 제도, 인식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경쟁력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반면, 지금 변화의 방향을 읽고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자금 운용 방식의 전환이다. 회계와 결제의 영역을 넘어, 금융의 속성이 산업의 속도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조직의 시스템과 의사결정 구조에 통합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세대의 금융 환경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느린 돈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FKI